

# 다니엘서 - 번호 59

최후의 예언적 비밀 공개: 유다 지파의 사자가 행하는 절정의 봉인 해제

Jeff Pippenger

2024-01-23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최후의 예언적 비밀의 봉인이 풀리며, 그 봉인 해제로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곧 지혜로운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그때 풀려나는 것의 일부에 빛을 비춘다.

여기 지혜가 있으니, 깨닫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요,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 또 여기 지혜 있는 마음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니라. 요한계시록 13:18, 17:9.

“교회와 하나님의 법과 전쟁을 벌일 마지막 권세는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바로 그 권세는 미국이다. 그것은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이며, 그 왕국의 구조는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구조(형상)이다. 그것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왕국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바로 그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곧 다가올 주일법과 함께 미국에서 완전히 확립된다.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교회들이 그들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도움을 구할 때 발전할 배도한 개신교의 한 형태를 상징한다. ‘짐승의 표’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위대한 논쟁, 445.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서로 다른 두 상징이지만,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비로소 완전히 형성된다.

개신교회들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교황권, 곧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고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오로지 그것을 명령하는 그 권세에게 경배를 바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세속 권세로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에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쟁투, 448, 449쪽.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미국 헌법은 완전히 전복되고 국가는 의로움과 완전히 결별한다. 그때 사탄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서 미국은 자국에서 막 수립된 것과 동일한 정교결합 체제를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세계 정부는 유엔이며, 로마 교회는 그 관계를 지배하는 교회이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의 우두머리, 곧 교황권 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의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7, 182.

예언에서 짐승의 우상으로 표상되는 정교결합 체제는 또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 곧 일곱째 머리는 용의 세력을 대표한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취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곧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아가는 용으로 표상되어 있다.” Testimonies to Ministers, 38.

“열 왕”은 유엔을 상징하며, 유엔의 종교는 심령주의이고, 거짓 선지자의 종교는 배도한 개신교이며, 짐승의 종교는 가톨릭이며, 이는 단지 기독교라는 신앙고백으로 덧씌워진 심령주의일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교황권의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에서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세력의 손을 붙잡고, 또 그 손을 구렁을 넘어 내밀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며, 이 삼중적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의 전파를 위하여 대비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다.” 『교회증언』, 제5권, 451.

일요법령이 내려질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성립된다. 그때 미국은 유엔의 세계 단일 정부를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이는 일요법령으로 인해 세계가 큰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며, 이슬람이 태양 숭배를 강요한 것에 대해 미국에 심판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어 사탄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나고, 미국이 정교 결합의 세계 단일 체제를 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일요일을 휴식일로 받아들이도록도 강요한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시험 과정이 그 후 온 세상에 가해진다.

“외국의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서지만, 동일한 위기가 온 세계 각처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Testimonies, volume 6, 395.

태양의 날을 예배의 날로 받아들이는 각 나라에는 국가적 배교 뒤에 국가적 파멸이 따른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고조되는 위기는 열 왕이 '죄의 사람'인 교황과 함께 통치하는 '한 시간'이다. 그들은 이슬람에 대한 격화되는 전쟁에 맞서 세계를 통합하려면 교황권의 도덕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이끌려, 자신들의 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에 넘기기로 동의했다. 1798년에는 유엔이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네가 본 열 별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열 왕들이지만,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7:12-14.

교황의 경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왕들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수 있도록 권력을 제공할 것이며, 어린양과 싸우는 자들은 바로 열 왕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한다. "죄의 사람"은 또한 이사야 4장에서 일곱 교회가 붙잡는 "남자"이기도 하다.

그 날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의복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치욕을 제하게 하소서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딸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에서 피한 자들에게 뛰어나고 아름다우리라. 이사야 4:1, 2.

"일곱 여인"은 교황권("죄의 사람")이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듯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장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교회들이 피하고자 하는 "비난"은 일요일에 예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비난"이다.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그 신실함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며, 이슬람 또한 태양의 날을 지키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미국이 교황권과 유엔 사이에서 주선하는 합의는, 땅에 평화를 세우기 위해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이끌려면 "죄의 사람"의 도덕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과 안전'이라 말할 때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하리니, 아이 밴 여자에게 진통이 임하듯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5.

성경 예언에 나오는 '평화와 안전' 메시지는 항상 거짓된 메시지로 제시되며, 평화와 안전이 없는 시기에만 논리적이다. 평화와 안전이 존재할 때에는 '평화와 안전' 메시지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 이슬람은 모든 평화와 안전을 없앤다. 그 거짓 메시지와 관련된 '갑작스러운 멸망'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와 같아 점차 격화되는 멸망이다. 세 번째 화의 첫 해산의 진통은 2001년 9월 11일이었다.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예언적 맥락에서 교황권의 기만이 드러난다. 아합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세벨에게 알리려고 사마리아로 돌아오자, 그는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한 자신의 증오와 관련하여 자신을 속였음을 깨달았다. 같은 증오와 기만은 헤롯이 생일 잔치에서 살로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도 드러났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이었으므로, 헤롯은 용이었고, 헤로디아는 교황권이었으며, 살로메는 거짓 선지자였다.

이 이야기에서 살로메의 춤이 지닌 기만적 힘은 헤롯(열 왕들)이 자기들의 왕국 절반을 교회(여자)에게 넘기도록 이끄는 데 사용되었다. 그 여자(살로메)는 어머니(가톨릭)의 지도 아래 있었고, 헤롯은 너무 늦게서야 헤로디아의 요한에 대한 태도가 이세벨의 엘리야에 대한 태도와 같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경우 모두 안식일 지키는 자들은 죽어야 한다.

이슬람은 점차적이면서도 급속하게 지구에서 평화와 안전을 없애며, 그리하여 인류를 이슬람에 맞서 하나로 모이게 한다. 이슬람의 급속히 격화되는 전쟁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짐승의 형상을 세우기 위해 동원되는 논거가 된다. 세상(열 왕)에게 가해지는 그 기만은 미국(살로메)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세상이 이슬람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그 합의가 안식일 준수자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될 속임수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다. 그 기만은, 비록 그들이 압박 속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일곱째 왕국을 내어주기로 동의했을지라도, 열 왕이 그 음녀를 미워하는 이유의 일부이다.

네가 그 짐승 위에서 본 열 뿔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넣으셔서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16, 17.

유엔의 글로벌리스트들은 단지 땅의 '왕들'일 뿐만 아니라 '상인들'로도 묘사되므로,  
글로벌리스트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으로 구성된다.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환상을 가져온 천사의 목적은 요한에게 두로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글로벌리스트들의 두 부류 모두 교황권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러므로 하루 만에 그녀에게 재앙들, 곧 죽음과 애통과 기근이 닥칠 것이요, 그녀는  
불로 철저히 불살라질 것이다.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이다. 땅의 왕들, 곧 그녀와 음행하고 그녀와 더불어 사치하던 자들이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서서 말하기를, "화,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강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임하였도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울고 애통하리니, 다시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8-11.

상인들과 왕들은 모두 멀리서 서서 "아아, 아아" 하고 외친다. 그리스어에서 "alas"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woe"로 번역된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화,  
화,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아직 나팔을 불지 아니한 세 천사의 그  
나머지 나팔 소리로 인함이다! 요한계시록 8:13.

세 화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가리키며, 이슬람을 상징한다. 왕들, 상인들,  
선장들 모두가 18장에서 '아아, 아아' 하고 세 번 탄식한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리라.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여, 능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  
이러한 것들의 상인들, 그녀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자들도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곡하며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세마포와 자색과  
주홍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던 그 큰 성이여! 한 시간에 그 큰 부요가  
무너졌도다." 또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들과 바다로 무역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것이  
어디 있으랴!" 그들은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던지고 울며 애곡하여 외쳐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그 큰 성이여, 그 사치로 말미암아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들이  
부요하게 되었던 그 성이여! 한 시간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9-10, 15-19.

교황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한 시간'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한 시간', 곧 '큰 지진의  
그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시작되어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닫힐 때까지 이어지는 일요일 법령의 기간을 나타낸다.  
음녀를 미워했지만 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나라를 음녀에게 주기로 동의한  
글로벌리스트들은 "화로다, 화로다"(아아, 아아)를 세 번 되풀이할 뿐 아니라, "이 큰 성과

견줄 만한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 그들은 그 질문을 에스겔서에서도 했다.

그들은 너를 거슬러 그들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심히 슬피 울부짖으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재 속에서 뒹굴 것이다. 그들은 너로 말미암아 머리를 아주 밀고,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며, 마음의 쓰라림과 격렬한 통곡으로 너를 위하여 울 것이다. 그들이 애곡하며 너를 위하여 애가를 들어 이르되, 바다 한가운데서 무너진 자와 같은 두로가 누구와 같으랴 하리라. 네 상품들이 바다에서 나아갈 때에 네가 많은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네 부와 상품의 많음으로 땅의 왕들을 부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물의 깊은 곳에서 바다로 말미암아 네가 부서질 때에는 네 상품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쓰러지리라. 모든 섬의 주민들이 너로 인해 놀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리라. 만민 중 상인들이 너를 향해 조롱하며 휘파람을 불 것이니, 너는 공포가 될 것이요,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리라. 에스겔 27:30-36.

에스겔은 그 도시를 '티루스'로 지목하고,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되었다'고 한다? 이사야는 두로(티루스)의 창녀에 대해 말하는데, 그녀는 또한 요한계시록의 큰 창녀이자 가톨릭 교회이며, 또한 그녀를 '관을 씌우는 도시'로 규정한다.

이것이 네 즐거운 성읍이냐, 그 오래됨이 태고의 날들에까지 이르는? 그 성읍은 자기 발로 멀리 떠나 나그네로 머무르게 되리라. 누가 두로, 곧 관을 씌우는 성읍,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장사꾼들은 땅의 존귀한 자들인 그 도성을 대적하여 이 계책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작정하셨나니, 모든 영화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멸시 가운데에 던지려 하심이라. 이사야 23:7-9.

교황권은 '정점의 도시'인데, 바로 그녀가 삼중 연합 위에 여왕으로 좌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녀에게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요한계시록 18:7.

에스겔은 타이러스에 대한 그의 애가에서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창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 인자야,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 다시스의 배들이 네 장터에서 너를 노래하였고,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충만하여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네 노 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도다. 에스겔 27:1, 2, 25, 26.

"동풍"이 왕관을 씌우는 성읍 두로의 음녀에게 심판을 가져오며, 그 "동풍"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열 왕이 이슬람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마지막 때의 교황권을 파괴한다. 자신들이 속아 왔음을 열 왕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시온 산은 북쪽 사면에 있는 크신 왕의 도성이라. 하나님은 그 도성의 궁전들에서 피난처이심이 알려졌도다. 보라,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당황하여 급히 달아났도다. 거기서 그들을 두려움이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 같은 산고가 그들을 엄습했도다. 주께서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시편 48:2-8.

글로벌리스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을 자기들의 머리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했음을 깨닫고 울며 애통한다. 그들이 택한 그 큰 성이 이슬람(동풍)에 의해 그들에게 닥친 전쟁으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 점점 더 격화된다.

그들이 교황권을 위해 박해해 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서 묘사되며, 거기서 우리는 "이 [글로벌리스트] 왕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알게 된다.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나라들을 산산이 부수고 멸하며,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 2:44.

밀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 왕들의 때'에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요한계시록 17장의 열왕은 아직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고, 실상 그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밀러주의자들은 옳았지만, 그들의 이해는 제한적이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왕들의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늦은비의 시기이다.

나는 만물이 그들 앞에 닥친 임박한 위기에 매우 주목하며, 생각을 한껏 곧추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죄는 미리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한다. 모든 죄는 성소에서 자복되어야 하며, 그러면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 일은 지금 해야 한다.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늦은 비는 순결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그때에는 모두가 이전과 같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천사가 놓아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모두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온 하늘이 그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Spalding and Magan, 3.

늦은 비의 때, 곧 천사들이 네 바람을 놓아주는 때, 즉 "이 왕들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늦은 비는 점진적으로 임하며, 셋째 화가 역사 속에 들어온 2001년 9월 11일에 보슬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으나, 열방의 분노는 즉시 억제되었다. 그 강도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면 국가적 파멸을 가져오게 될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런 격화되는 심판은 이어서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본을 따름에 따라 계속되며, 그리하여 그들도 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격화된다. 그 과정은 해산의 진통을 겪는 여인처럼 진행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일곱 가운데 여덟째 존재에 대한 고찰을 이어가겠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탄을 섬기는 한,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실상을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스가랴서 3장과 4장, 그리고 4장 12-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개의 금관을 통하여 스스로 금빛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주님은 자원이 풍성하시다. 그분에게는 어떤 수단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 부족, 세속성, 헛된 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불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모여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인격에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며 만인 중 으뜸이신 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영혼이 허영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만족할 때, 주의 영은 그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근시안적 시야는 그림자만 보되, 그 너머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은 풀려나 온 지면을 휩쓸고 달리려는 성난 말로 묘사되며,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간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버리겠는가? 우리가 무감각하고 차갑고 죽은 상태로 있겠는가? 아, 우리 교회들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불어넣어져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넓음에는 한계가 없다. 원고 발표집, 제20권, 217쪽.